

# 보성·별교 복합센터 베일 벗는다

## 별교읍 설계공모 당선작 선정·공개... 입체적 공간 구성 돋보여 765억 원 투입 수영장·문화센터·도서관·등 편의시설 들어서



보성군이 도심 활력을 위해 역점 추진하고 있는 보성군 복합커뮤니티센터와 별교 문화복합센터 건립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군은 14일 별교문화복합센터 건립 사업 설계공모를 통해 당선된 복합센터 디자인을 공개했다.

당선작은 ㈜리가온건축사사무소에서 출품한 작품으로 주변경관과 조화

로운 입면계획, 내·외부 공간의 유연한 연결, 입체적인 외부 공간 구성 등이 돋보였으며 별교의 지역적 정체성이 잘 표현된 디자인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별교문화복합센터는 연면적 10,500㎡ 규모로 지어지며, 수영장, 생활문화센터, 작은도서관, 작은영화관, 주차장 등의 편의시설이 들어선다. 2022년 상반기 설계를 마무리하고, 하반기에

착공해 2024년 완공될 예정이다.

보성읍에 건설되는 '보성군 복합커뮤니티센터'는 연면적 15,700㎡ 생활문화센터, 가족센터, 작은도서관, 체육시설, 행정지원센터, 주차장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었으며, 실시설계 올해 하반기 착공하여 2023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보성읍과 별교읍 두 군데에서 추진되고 있는 복합센터 건립 사업의 진행 상황을 총총히 챙겨, 부족한 문화 시설을 확충하고, 지역 주민들의 문화적 감성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성군은 별교문화복합센터를 비롯한 보성군 복합커뮤니티센터, 도시재생뉴딜 사업 등 도심 활력을 위하여 765억 원을 투입해 주민생활여건과 정주여건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보성=김덕순기자

## 고흥군,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금 30만원 지급

고흥군은 코로나19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농가에 농업 재난지원금 일환으로 지급되는 한시 경영지원금에 대해 지역농협을 통해 신청 받아 농가당 30만원을 신용·직불카드 포인트 충전 형식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는 코로나19로 인한 소규모 농가에 지원되는 재난지원금으로 2020년 직접직불금을 수령한 농가 중 5000㎡(1.500평) 이하의 소규모 직접직불금을 수령한 농가로, 금년 4월 1일 기준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에 등록되어 있어야 신청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4월 30일까지 경작 농지 소재지 관할 농·축협 또는 농협은행에 신청하여야 하며 직접 방문신청과 온라인(PC, 모바일 모두 가능)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번 고흥군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대상자는 2020년도 소규모 직접직불금을 수령한 약 8,000여 농가로 농가당 30만원의 바우처를 지원받으며 대상자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농협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충전 방식으로 지급하며 신청기간은 4월 30일까지이다.

고흥=김택영기자

## 광양시, '금속가공 열처리 지원센터' 준공 앞뉘...오는 9월 본격 운영 예정

전남지역 금속가공 산업의 거점 역할을 담당할 '광양시 금속가공 열처리 지원센터'가 4월 말 준공을 앞두고 있다.

광양익신산단에 소재한 열처리 지원센터는 익신산단이 2016년 '뿌리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후 2017년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건립됐다.

지원센터는 총사업비 110억 원(국비 45, 도비 25, 시비 40)을 투입해 면적 1,800㎡ 규모로 조성되며, 전남테크노파크에서 전담 운영한다.

시는 그동안 뿌리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익신산단을 중심으로 금속가공 산업 활성화와 뿌리산업 고도화 전략을 추진했다.

현재 무산화 침탄 열처리로, 대차식 열처리로, 초음파 세척기, 쇼트기, 샌딩기 등 5종 7대의 장비가 구축됐으며, 오는 6월 준공 열처리로, 플라즈마 질화로 2종 장비가 추

가 입고되면 장비구축이 완비된다.

광양시는 4월부터 열처리 수외 기업 발굴을 위해 전남 테크노파크와 합동 마케팅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며, 6월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9월에 본격 가동한다.

시는 센터가 본격 가동되면 중소기업에 대한 열처리 장비 지원뿐만 아니라 열처리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개발 및 기술 지원, 마케팅 등 밀착지원을 통해 전남권 뿌리산업의 중심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화영 지역경제과장은 "금속가공 열처리 지원센터 건립으로 지역 주력산업인 금속 가공산업의 집적화와 뿌리산업의 고도화 등 다양한 시너지 효과가 창출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연관기업 입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광양=심종섭기자

## 여수시 "참문어 옛명성 되찾는다"

### 국비 25억 확보 2025년까지 50억 투입 산란·서식장 조성

여수시가 전국 문어 생산량의 30% 이상을 차지했던 옛명성을 되찾기 위해 참문어 산란·서식장 조성사업을 올해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추진한다.

타우린이 풍부한 참문어는 특유의 쫄깃한 식감으로 대표적인 인기 수산물이나 자원남획 등으로 2017년 500톤을 상회하는 위관과가 2020년 137톤으로 떨어지는 등 매년 어획량과 위관량이 감소하는 실정이다.

여수시는 참문어 자원회복을 위해 지난해 11월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는 산란·서식장 조성사업 공모에 뛰어들어 전국 10개 대상지역 중 1곳으로 선정됐다.

참문어 산란·서식장 조성사업은 연간 10억 원씩 5년간, 총 50억 원(국비 25억, 시비 25억)이 투입된다. 시는 참문어 자원의 지속적 공급 거점 확보를 위해 참문어 산란·서식장 조성, 문어종자 방류, 모니터링 등을 통해 조성기법 개발 및 관

리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 2월 25일 문어단지 등 어업인 의견을 수렴하고, 지난 9월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남해본부와 사업위탁 계약을 체결했다. 금년 첫해 사업으로 돌산 신기마을 해상에 문어단지를 활용한 산란장 설치 및 문어 종자방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고부가가치 어종이자 어선어업인의 주수입원인 참문어 자원량 회복에 심혈을 기울여 안정적인 수산자원 공급으로 어업인 소득증대에 앞장서겠다"면서 "5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문어조업 금지기간 준수 등 어업인의 적극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여수=오상호기자

## 순천 조례동 롯데하이마트 앞 육교 26년만에 '역사속으로'

### 내일 밤부터 17일 새벽까지 철거로 인한 일부차선 교통 통제



순천시는 교통약자 편의증진 및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조례육교3 철거 및 교통시설 설치공사'를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삼선전자서비스센터 앞 사거리에 횡단보도를 설치한 후 육교를 철거하는 사업으로 이달 21일 완

료될 예정이며, 육교 철거를 위해 오는 16일 21시부터 17일 06시까지 일부차선의 교통이 통제된다.

조례동 롯데하이마트 앞에 위치한 '조례육교3'은 1995년 차량 통행량증가로 인한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건설되었다.

그러나 현재 육교 부근에 횡단보도가 없어 육교를 이용하기 힘든 교통약자들의 무단횡단사태가 증가하여, 교통약자의 편의증진과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해당 육교를 철거하기로 결정되었다.

시는 신속하고 안전한 공사 진행을 위해 16일 21시부터 육교철거를 통제하고 23시 30분부터 17일 06시까지 공사 공정에 맞추어 신호수, 차단벽 및 교통통제표지판을 이용하여 일부차선 교통통제를 실시한다.

순천시 관계자는 "시민 교통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야간·새벽 시간대에 공사를 진행하는 만큼 교통혼잡은 예상되지 않는다"며 "공사시간대에 해당구간을 이용하는 시민께서는 서행, 전방 주시 등 교통안전에 특별히 주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순천=김승호기자

## 순천시, 순천 팔마비 보물 지정 축하 행사 개최

### 청렴 의미 되새기는 자리

순천시는 순천 팔마비의 보물(제2122호) 승격을 기념하기 위한 축하 행사를 13일 순천부읍성 남문터 광장에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허석 순천시장과 김현모 문화재청장, 소방청 국회의원 등 관계자들만 참석하여 소규모로 진행되었으며, 현

장에서 관람하지 못하는 시민을 위해 순천시 대표 페이스북, 유튜브 등으로 생중계 되었다.

또한 팔마비 보물 안내판 제작식과 함께 김현모 청장이 허석 시장에게 팔마비 보물 지정서를 전달하였다.

이어 축하 퍼포먼스, 청렴 선언 핸드프린팅 등 참석한 주요 내빈들은 청렴의식을 다지고 '팔마'의 명칭을 가진 학교와 단체 관계자들이 청렴 메시

지를 전하며 팔마비의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로 마련됐다. 부대행사로 팔마정신 역사 기록전시회가 이날 하루 이어졌다.

허석 순천시장은 "29만 순천시민과 함께 이 기쁨을 나누고, 또 다른 보물, 또 다른 국보가 나올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승호기자

**책과 함께 슬기로운 거리두기**

코로나19로 우리의 일상이 잠시 멈췄습니다.

'책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으로  
코로나19 극복에 동참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